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부담

김 지 경*

I. 서론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1960년대 대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였고, 1970년대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변화를 선두에서 경험한 세대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은 전통과 혁신이라는 양면적인 가치관을 소유하는 특성이 있다. 흔히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부양을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반면 자신의 노후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즉 부모부양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첫 세대(정성호, 2006)라고 설명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족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은 부모에 대한 자녀세대의 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자녀세대의 부모부양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모부양 기능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가족부양관의 규범적 규제력과 아울러 한국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김두삼·박경숙이세용, 2000).

현재 40대 중·후반~50대 초반 연령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생애주기상 중년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유연화를 중심으로 재편된 노동시장 구조 안에서 안정된 소득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근로능력을 상실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과 자녀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수준이 낮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 주 제공자가 되고¹⁾,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jkkin@nypi.re.kr).

1) 통계청의 사회조사(2008) 결과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34.1%가 자녀 또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40~49세와 50~59세가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는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1.8%, 75.2%로 높은 수준이다.

중년기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하며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유민상, 2008; 유경원, 2007; 하준경, 2006; 이성림, 2005)이 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70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과 입시지옥, 명문학교 입학에 위한 과외 수업까지 경험한 바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자녀교육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강하다. 단적인 예로, 199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조기유학의 붐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든 시기에 본격화되었으며, 기러기 아빠의 가장 큰 비중을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한다(정성호, 2006). 이처럼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위로는 부모세대, 아래로는 자녀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깁 세대’로서 양방향의 경제적 부담을 모두 안은 채 자신의 미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샌드위치세대(sandwich generation)’인 것이다.

생애과정에 있어 비독립적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모를 돕는 샌드위치세대(Grudy & Henretta, 2006)의 부양부담에 대한 관심은 중년기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서구의 연구들(Ingersoll-Dayton, Neal & Hammer, 2001; Brody, 1985; Grudy & Henretta, 2006; Miller, 1981)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후보장제도와 서로 다른 교육환경 및 제도, 그리고 문화를 갖는 서구 선진국의 관련연구들에서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논의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샌드위치세대로서 갖는 경제적 부담이 서구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부모부양이나 자녀교육의 부담과는 논의의 맥락이 상이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치명적인 영향에 정면에서 맞선 이들이다. 당시 30대 후반~40대 초반이었던 베이비붐 세대는 혹독한 IMF관리체제하에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중년기의 성인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일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부모부양은 물론 자녀의 교육,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를 안고 있다(정성호, 2006).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 격변기의 선두에 서서 살아온 베이비붐 세대가 중년이 된 현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에 ‘깁 세대’로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안고 있는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사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부양

1.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율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교육 또는 취업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지리적 이동을 하게 되므로 부모와의 동거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데 거리 또는 공간의 의존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고(박경숙, 2003), 그 결과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도 부모와 비교적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양을 제공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강유진·한경혜, 1997). 이 같은 사실은 생존하는 비동거 부모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지원여부를 살펴본 <표 1>에서도 확인된다. 비동거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율은 70.7%,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율은 60.9%다.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율은 부모의 생존여부에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의 생존여부는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연도에 따라 이들 부모의 생존율과 경제적 지원율을 동시에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가구주부모와 배우자부모로 나누어 부모 생존율과 경제적 지원율을 비교한 것이다. 부모 생존율과 경제적 지원율은 가구주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부모의 생존율이 높으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율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가구주부모의 생존율과 경제적 지원율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타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출생자의 부모생존율과 경제적 지원율을 살펴보면, 부모생존율이 증가된 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지원율도 증가하여 곡선의 흐름이 동일하게 그려진다. 이는 부모가 생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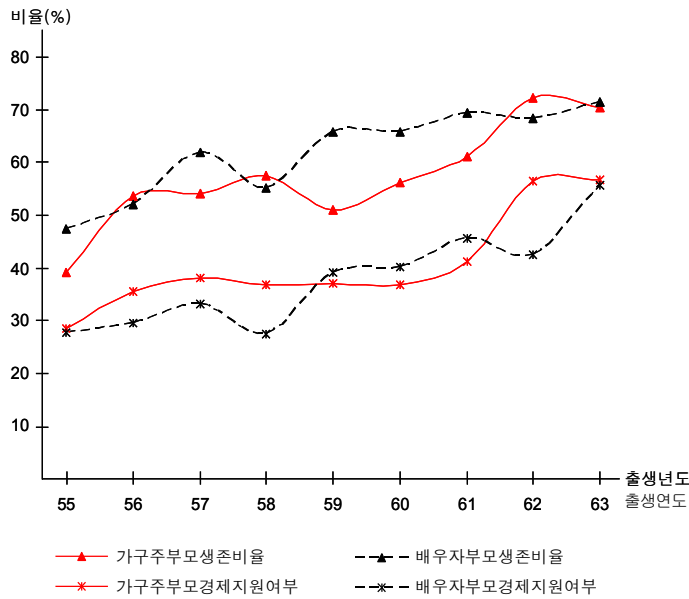
<표 1> 비동거 부모의 유무 및 경제적 지원 여부

(단위 : 명, %)

	가구주부모		배우자부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1,011	(100.0)	1,011	(100.0)
없 다	437	(43.2)	390	(38.6)
있 다	574	(56.8)	621	(61.4)
경제적 지원여부	지원함	406 (70.7)	지원함	378 (60.9)
	안함	168 (29.3)	안함	243 (39.1)
	전체	574 (100.0)	전체	621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 원자료.

[그림 1] 출생연도별 부모 생존율과 경제적 지원을



해 있다면 경제적 지원은 대체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율은 베이비붐 세대 내 출생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비동거부모에 대한 지원 금액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가구주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가구는 분석대상 1,011가구 중 559가구로 전체의 55.3%를 차지한다. 전체 대상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총지원금 합은 연평균 88.1만 원이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평균 159.4만 원 정도이다. <표 2>에서와 같이 부모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표 2>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액

(단위: 연평균, 만 원)

	사례수	구 분	지원금액	(표준편차)
전체 대상가구	1,011	총합(현금+현물)	88.1	(202.4)
		현금	82.2	(135.3)
		현물	5	(29.0)
부모님 지원하는 가구	559	총합(현금+현물)	159.4	(250.6)
		현금	153.4	(230.6)
		현물	44.4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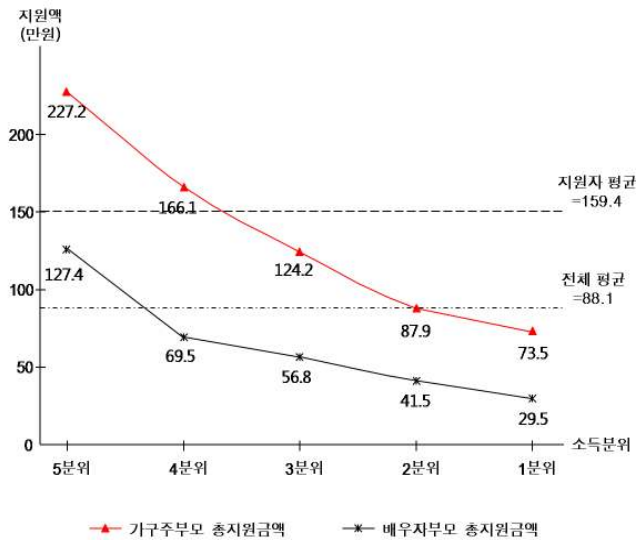
자료: <표 1>과 동일.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현물로 이루어지는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같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액은 자녀의 소득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원을 하는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액은 많아진다(강유진·한경혜, 1997; 김지경·송현주, 2008).

[그림 2]는 전체 분석대상 가구(1,011가구)를 월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누고, 비동거 부모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각 분위별 평균 지원액을 산출하여 소득분위별로 비교함과 동시에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액과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액을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가구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의 연평균 지원액과 4분위 그룹의 지원액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액과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액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액이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액에 비해 소득분위별 금액 차이가 많으며, 절대금액이 적은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액은 4분위에서 1분위 사이에 완만한 기울기를 보인다.

가구주부모에 대한 5분위의 지원액(연평균 227.2만 원)과 4분위의 지원액(166.1만 원)을 제외하면 모두 지원가구 평균 금액(159.4만 원)보다 적으며, 가구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지원액(73.5만 원)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가구가 포함된 전체 대상의 평균금액(88.1만 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평균 지원액(227.2만 원)은 1분위의 평균 지원액(73.5만원)의 3배가 넘는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지원액은 높으나, 그만큼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액과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액의 차이도 커져 절대지원액이 가장 많은 5분위에서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액과 부모에 대한 지원액의 차가 가장 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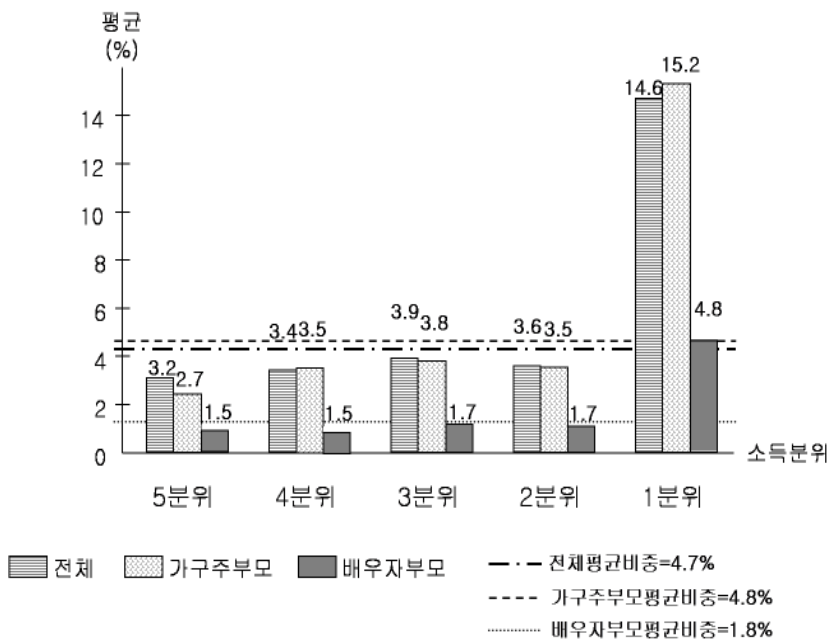
[그림 2] 소득분위에 따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액



1분위에서 그 차가 가장 작다.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가구소득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그림 3]과 같이 살펴보았다. 전체 지원자의 소득 대비 평균 지원액 비중은 4.7%로 부모에 대한 지원액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할 정도의 부담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각 소득계층별 부담의 수준은 달라진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 가구소득 대비 3.2% 수준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 반면,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1분위에서는 부모에 대한 지원액이 무려 가구소득의 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금액의 절대액수는 적을지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의 저소득층에게 있어서는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이 상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베이비붐 세대가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자녀의 이전소득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천이 없는 비동거 부모를 부양해야 할 경우, 그 부담이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1분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비중이 4.7%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소득분위별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 비중 분포



Ⅲ.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사교육비 지출

1. 자녀구성과 사교육비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사교육비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베이비부머의 자녀구성을 파악하고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별로 사교육비 지출 정도를 살펴보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와 대학생자녀의 등록금 이외 교육비용, 즉 사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는가를 <표 3>과 같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1명일 때보다는 2명 이상인 경우가 사교육이용률도 높고 사교육비 지출금액도 많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평균 사교육비용은 월평균 22만 원인데, 고등학생자녀와 대학생자녀가 모두 있는 유형 1의 경우(24.1만 원)가 고등학생 이하 자녀만 있는 유형 2(19.1만 원)의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그러나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유형 1의 경우(35.1만 원)보다 유형 2의 경우(56.5만 원)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는 동일한 수의 자녀가 있을지라도 자녀의 연령과 학령에 따라 사교육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다시 말해 자녀수뿐만 아니라 자녀구성에 따라 가계의 자녀사교육비 지출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자녀구성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단위: %, 만 원)

	해당 자녀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전 체	
		이용률 또는 지출률	평균 지출액 (표준편차)	이용률 또는 지출률	평균 지출액 (표준편차)	이용률 또는 지출률	평균 지출액 (표준편차)	이용률 또는 지출률	평균 지출액 (표준편차)
고등학생 이하 자녀	1명	64.5	24.1 (30.7)	61.9	19.1 (23.5)			63.4	22.0 (27.9)
	2명 이상	68.2	35.1 (38.7)						
대학생 자녀	1명	82.1	30.9 (45.4)			79.8	26.9 (27.9)	81.1	29.1 (38.3)
	2명	100.0	47.1 (23.7)						

자료: <표 1>과 동일.

2. 사교육비 지출액 및 월평균 생활비 대비 비중

<표 4>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월평균 지출하는 금액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베이비부머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로 월평균 53.4만 원을 지출하고, 대학생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베이비부머는 대학생자녀 사교육비로 월평균 40.4만 원을 지출한다. 지출금액을 4개의 범주로 나누어 그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와 대학생자녀 사교육비 모두 월평균 2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에 각각 40.0%와 53.3%가 집중되어 있다.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경우(14.2%)가 대학생자녀(5.3%)의 경우보다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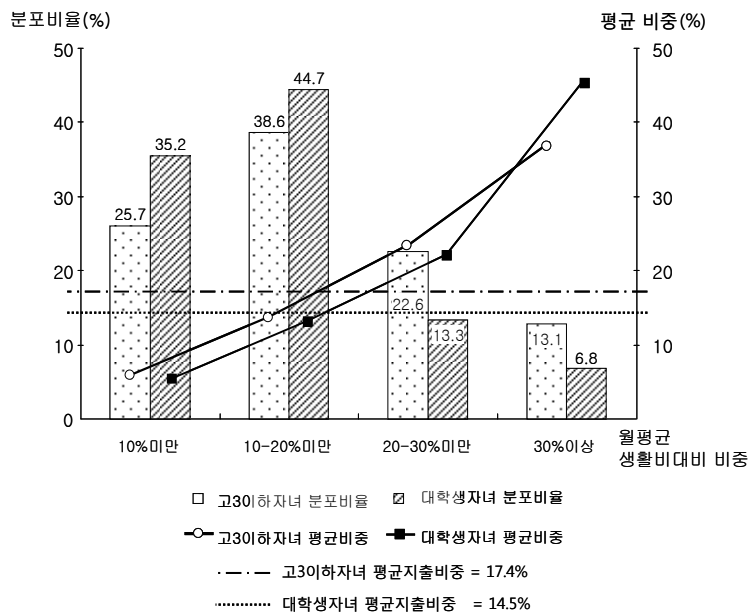
<표 4> 고등학생 이하 자녀 사교육비, 대학생자녀 사교육비 지출금액 분포

(단위: 명, 만 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				대학생 자녀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	평균 (표준편차)		
20만 원 미만	72	(16.3)	10.4 (4.5)	50	(14.8)	10.5 (3.4)		
20만 ~ 50만 원 미만	177	(40.0)	30.8 (8.0)	180	(53.3)	27.8 (7.5)		
50만 ~ 100만 원 미만	131	(29.6)	63.9 (13.2)	90	(26.7)	59.2 (11.8)		
100만 원 이상	63	(14.2)	144.5 (51.1)	18	(5.3)	154.7 (92.0)		
전 체	443	(100)	53.4 (46.6)	338	(100)	40.4 (38.8)		

자료: <표 1>과 동일.

[그림 4] 월평균 가구생활비 대비 자녀사교육비 지출비중



자녀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녀사교육비 지출금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였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출하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생활비의 평균 17.4%이고, 대학생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이보다 낮은 14.5% 수준이다. 자녀의 사교육비로 월생활비의 10~20% 미만 정도를 지출하는 베이비부머들이 가장 많고(고등학생 이하 자녀: 38.6%, 대학생자녀: 44.7%), 월생활비의 10% 미만 수준에서 지출하는 이들이 두 번째로 많다. 앞에서 살펴본 사교육비 지출금액에서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대학생자녀에 비해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서 더 높았던 것과 같이, 월생활비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도 고등학생 이하 자녀(13.1%)가 대학생 이하 자녀(6.8%)의 경우보다 더 높으며, 그 차이가 1배 가까이 된다.

IV. 부모지원과 자녀사교육비 지출의 상호영향

1. 부모지원에 대한 자녀사교육비의 영향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함께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토빗(Tobit)모형을 사용하여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남여부는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장남이라는 출생순위의 특성이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부양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세대 내에서 연령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에만 확보되고 있다. 가구총소득 변수는 지원금에 정(+)의 영향을 미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원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수준은 지원자인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남을 의미한다. 아울러 분석 결과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수준은 지원자녀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조사의 사유로 부모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생활비를 지원 하는 경우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원하는 경우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경조사의 사유로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나, 별다른 이유 없이 지원하는 경우는 경조사의 사유에서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생계비를 전담한다거나 보조를 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에 비해 큰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는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금에만 영향을 미치고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가 비동거 부모에 대한 지원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소득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지출항목에 분배할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과 자녀의 사교육비가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게 되는 항목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가구주부모	배우자부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특성	성별(남자)	-21.11 (37.45)	-39.73 (35.69)	10.47 (26.97)
	연령	-9.16 (3.96)*	-6.52 (3.89)	-5.53 (2.50)*
	교육연수	1.73 (3.49)	1.34 (3.44)	1.81 (2.22)
	장남여부(장남)	31.95 (46.29)	46.02 (45.33)	-6.47 (28.91)
가구특성	거주지역(광역시)	-14.26 (18.44)	-18.28 (18.04)	1.72 (11.48)
	자가소유여부(자가)	20.37 (20.05)	7.72 (19.56)	27.95 (12.71)*
	가구총소득	70.31 (14.90)***	34.88 (14.48)*	56.01 (9.85)***
	경제적지원사유 (생활비지원/경조사)	143.46 (27.87)***	151.96 (26.48)***	-16.13 (17.73)
	경제적지원사유 (별이유없음/경조사)	-230.28 (22.20)***	-201.78 (22.36)***	-103.89 (13.80)***
	맞벌이어부(맞벌이)	-27.84 (19.16)	-10.04 (18.78)	-10.57 (11.76)
사교육비	고등학생이하	-.43 (.29)	-.10 (.28)	-.50 (.19)**
	대학생	-.96 (.35)**	-.73 (.39)	-.42 (.21)*
유형	유형 1(유형 3)	240.01 (38.01)***	166.83 (38.03)***	152.60 (23.13)***
	유형 2(유형 3)	248.08 (28.48)***	204.46 (27.85)***	142.42 (18.17)***
	유형 7(유형 3)	225.39 (31.35)***	146.86 (32.06)***	132.68 (19.38)***
	상수	-148.46 (216.59)	-27.11 (213.15)	-308.65 (137.80)*
	sigma	239.09 (7.23)	219.98 (8.11)	134.89 (5.13)
N		1,011	1,011	1,011
Left-Censored		452	605	633
LR chi2		633.30***	463.82***	437.47***
Pseudo R2		.07	.07	0.8
Log likelihood		-3957.87	-2954.53	-2569.27

주: 유형 1: 부모 경제적 지원과 고등학생 이하 및 대학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함.

유형 2: 부모 경제적 지원과 고등학생 이하 자녀 사교육비 지출.

유형 3(준거집단): 자녀사교육비 지출 없이 부모 경제적 지원.

유형 7: 부모 경제적 지원과 대학생자녀 사교육비 지출.

자료: <표 1>과 동일.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유형의 영향력을 자녀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고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유형(유형 3)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사교육비와 함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유형들(유형 1, 유형 2, 유형 7) 모두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과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을 분석한 각 모델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경우보다 자녀에 대한 사교육 지출도 하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하는 이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녀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모지원금의 영향

비동거 부모에 대한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방식과 같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토빗(Tobit)모델을 사용하여 <표 6>과 같이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과 대학생사교육비 지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I에서 베이비부머의 성별과 교육연수 그리고 가구총소득과 유형들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연령과 비동거 부모에 대한 총지원금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베이비부머의 성별이 남성일 경우 여성에 비해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많고,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출금액이 많다. 또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지출금액이 많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직업보다는 학력수준이 자녀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여건이 사교육비 지출에 주요 요인이라는 사교육비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비동거 부모에 대한 총지원금의 영향력은 지원금이 많을수록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는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총지원금을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금과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누어 분석한 모델 II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금이 많을수록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동거 부모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지원금 중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금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와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비동거 부모 지원여부와 사교육비 지출여부를 기준으로 나눈 유형 중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있는 유형들을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만 지출하는 유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교육비 지출을 함께 하거나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과 대학생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함께 하는 유형이 사교육비만을 지출하는 유형에 비해 모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월평균 자녀사교육비 지출금액

		고등학생 이하		대학생	
		모델 I	모델 II	모델 I	모델 II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특성	성별(남자)	31.19 (11.14)**	31.03 (11.12)**	1.41 (8.02)	1.17 (8.02)
	연령	-6.04 (.91)***	-6.01 (0.91)***	5.05 (.91)***	5.03 (0.91)***
	교육연수	4.32 (.88)***	4.34 (0.88)***	1.02 (.81)	1.01 (0.81)
	직업(전문·준전문직)	1.90 (5.79)	1.55 (5.78)	-10.05 (6.00)	-10.22 (6.00)
	직업(기능조립·단순노무)	-6.35 (5.60)	-6.84 (5.60)	-6.35 (5.50)	-6.49 (5.50)
가구특성	거주지역(광역시)	4.42 (4.18)	4.36 (4.17)	-5.00 (4.18)	-4.89 (4.18)
	자가소유여부(자가)	1.64 (4.53)	1.76 (4.52)	13.78 (4.68)**	13.81 (4.67)**
	가구총소득	19.38 (3.73)***	19.59 (3.73)***	5.20 (3.10)	5.39 (3.11)
	맞벌이여부(맞벌이)	-.11 (4.42)	-0.11 (4.40)	1.31 (4.49)	1.33 (4.49)
지원금액	총지원	-.02 (.01)*	-	-.08 (.02)***	-
	가구주부모지원	-	-0.01 (0.02)	-	-.07 (0.02)**
	배우자부모지원	-	-0.06 (0.03)*	-	-.10 (0.04)**
유형	유형1(유형 6)	72.02 (7.59)***	72.11 (7.57)***	-	-
	유형2(유형 6)	79.70 (5.31)***	79.53 (5.29)***	-	-
	유형4(유형 6)	67.42 (10.01)***	67.16 (9.99)***	-	-
	유형 1(유형 5)	-	-	87.95 (7.50)***	88.14 (7.51)***
	유형 4(유형 5)	-	-	79.16 (9.49)***	79.02 (9.49)***
	유형 7(유형 5)	-	-	92.42 (5.86)***	92.58 (5.87)***
상수	상수	13.46 (50.74)	10.59 (50.66)	-344.73 (50.93)***	-345.25 (50.93)***
	sigma	52.10 (1.85)	51.96 (1.85)	48.29 (2.01)	48.26 (2.00)
N		1,011	1,011	1,011	1,011
Left-Censored		568	568	673	673
LR chi2		678.43***	680.74***	528.90***	529.40***
Pseudo R2		.12	.12	.12	.12
Log likelihood		-2539.60	-1283.44	-1953.04	-1953.79

주: 유형 1: 부모 경제적 지원과 고등학생 이하 및 대학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함.
 유형 2: 부모 경제적 지원과 고등학생 이하 자녀 사교육비 지출.
 유형 3: 자녀사교육비 지출 없이 부모 경제적 지원.
 유형 4: 부모 경제적 지원하지 않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대학생자녀 사교육비 지출.
 유형 5(대학생자녀 모델의 준거집단): 대학생자녀 사교육비만 지출.
 유형 6(고등학생 이하 자녀 모델의 준거집단): 고등학생 이하 자녀 사교육비만 지출.
 유형 7: 부모 경제적 지원과 대학생자녀 사교육비 지출.
 자료: <표 1>과 동일.

대학생자녀의 사교육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고등학생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과 대학생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모델 I에서 베이비부머의 연령과 자가소유여부, 그리고 유형들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비동거 부모 총지원금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모델 II의 결과에서와 같이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금과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금 모두 부의 영향을 미쳐 이들 지원금이 많을수록 대학생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 분석결과와는 달리 대학생자녀 사교육비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의 대학생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생자녀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구총소득이 유의하지 않고 자가소유자가 비자가소유자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많다는 결과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 사교육비 지출과는 달리 대학생자녀의 사교육비는 자산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비동거 부모에 대한 총지원금, 그리고 가구주부모 지원금과 배우자부모 지원금이 많을수록 대학생자녀 사교육비는 적다는 결과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는 가구주부모나 배우자부모의 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항상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지출항목인 반면, 대학생자녀의 사교육비는 비동거 부모 지원금과 비교된 후 선택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임을 시사한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 분석에서와 같이 대학생자녀의 사교육비 분석에서도 대학생자녀 사교육비만 지출하는 유형에 비해 다른 유형들, 즉 비동거 부모 지원과 대학생자녀 사교육비 지출을 함께 하는 유형이나 고등학생 이하 자녀 사교육비 지출을 함께 하는 유형에서 대학생자녀 사교육 지출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낀 버팀목 세대이면서 윗세대와 아래 세대 부양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샌드위치세대로서의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지원과 자녀사교육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기초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남이라는 특성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는 한국의 중년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부양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세대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소득수준이 높은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에 비추어본다면,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부모부양에 대한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책임이 더 이상 부모지원의 결정요인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비동거 부모에 대한 지원은 가족문화에 있어서의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가치관보다는 생활에 기초한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계 중심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비동거 부모 경제적 지원이 남성 가구주부모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남에 대한 부모부양의 규범적 책임이 베이비붐 세대에게 있어 이미 약화되었을 수 있으나, 부계의 가구주부모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부양책임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액은 연평균 소득의 평균 4.7%로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월생활비의 17.5%(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14.5%(대학생자녀)를 차지하는 자녀사교육비는 가족부양의 경제적 부담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샌드위치세대로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양부담이 부모세대에 기인하기보다는 자녀의 사교육비부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절대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1분위계층에서는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무려 연소득 대비 14.6%를 차지하므로, 이 계층의 경우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자녀사교육비는 비단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던 입시위주의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뿐만이 아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대학생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84.1%로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비율(75.2%)보다 높다. 이와 같이 높은 사교육비 지출률은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의 지출이 이미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지출항목이 아니라 필수제 구입과 같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만큼 취업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위한 대학생들의 사교육서비스 이용은 그리 쉽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83.8%(2008)이고,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와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이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3배(참여연대, 2008)에 달하며 등록금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부모가 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자녀사교육비의 부담수준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은 수치 이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과 자녀사교육비가 서로 부(-)의 관련성을 갖

는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제한된 소득이라는 예산제약하에서 가계가 필요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 지출항목에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게 될 때,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과 자녀의 사교육비가 서로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특히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과 자녀의 사교육비는 우선순위의 경쟁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쌍방향의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할 경우,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과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같은 저울에 올려 그 중요성의 무게를 가늠하거나 우선순위를 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부모에 대한 지원율과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를 고려해 보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베이비부머가 안고 있는 양방향,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사교육비 사이에서 일정수준 조율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우자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L**

<참고문헌>

- 강유진·한경혜(1997), 「비동거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pp.271~288.
- 김두섭·박경숙·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pp.55~90.
-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간의 사적 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pp.77~98.
- 박경숙(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 pp.61~94.
- 유경원(2007),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 『국제금융연구』 312호.
- 유민상(2008), 「사교육비 지출이 노후대비저축에 미치는 영향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pp.63~76.
- _____(2005),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분석: 과소비·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1), pp.73~95.
- 정성호(2006), 『중년의 사회학』 살림지식총서 236.
- 참여연대(2008),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통계청(2008), 「통계조사자료 DB: 2008 사회통계조사자료」.
- 하준경(2006),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원.

- Brody, E. M.(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Stress", *Gerontologist* 25, pp.19~29.
- Grudy, Emily and John C. Henretta(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ing & Society* 26, pp.707~722.
- Ingersoll-Dayton, Berit, Margaret. B. Neal, and Leslie B. Hammer(2001), "Aging Parents Helping Adult Children: The Experience of the Sandwiched Generation", *Family Relations* 50(3), pp.262~271.
- Litwak, Eugene(1985),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 Systems*, New York: Guilford Press.
- Miller, D. A.(1981), "The Sandwich Generation: Adult Children of the Aging", *Social Work* 26, pp.419~423.
- Shanas, Ethel(1980),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The New Pion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pp.9~15.